

지역 소식통

서남해 해상풍력 착수준비 '착착'

김제시, 양성평등위원회 개회

정읍 소하천 유지관리 일제 점검

정읍시가 우기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소하천 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상반기 내에 289개소 372에 이르는 소하천의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소하천으로서의 기능 향상을 꾀하고 노후 시설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과 직원과 읍면동, 지역주민과 합동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제방·호안 등의 유지 상태와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소하천 시설의 관리 상태 ▲수목과 쓰레기 적체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소하천 내 자재 무단 적치나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히 소하천 불법 점등도 중점 점검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 등의 행정지도에 나선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보건소, 입산부 출산 준비 교실

김제시보건소는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기별 총 7회에 걸쳐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관내 입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3월 10일에 실시한 입산부 출산 준비교실은 교육실 전체를 편백나무로 전면 공사하여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출산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소하는 입산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제시보건소는 최근 고령 입산부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출산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출산 후 건강한 아기를 양육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김제시 성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일 성덕면사무소 복지화관 2층에서 주민자치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시사에 따른 급변 상황에 주민자치 운영정착을 위한 3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은 국가적으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시상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현시점을 감안해 성덕면 주민자치 상반기 주요사업의 개최 및 연기 여부에 대해 회의의 안건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성덕면의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한마당 잔치는 4월에서 9월경으로 미루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교육은 소수인원의 이동임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3월 24일 당진시 신령면 일대에서 추진하게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4월 착수 예정... 2020년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 기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착수준비가 착착 완료되고 있다.

15일 한국 해상풍력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 고창 서남해 일원에 들어설게 될 해상풍력이 올 4월 착수 예정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에는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신기술로는 국내 최초 저 풍속형 탄소블레이드 3MW 대형터빈과 해상변전소 최초건설, 공기단축하기가 가능한 기초구조물 실증연구, ICT 제어기술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섬유 블레이드는 전북도 산업분야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며, 효성의 5MW급 2기 추가설치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해상용 5MW 풍력기 설치 시초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는 신 재생 에너지 건설분야가 급성장하고 있어 그 중 해상풍력이 매년 3~5G(원전 3~5기 용량)가 신규 설치되고 있으며, 이 시장을 선



녹색에너지 강국의 희망! "서남해 해상풍력"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한국해상풍력(Korea Offshore Wind Power)

점하려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해상풍력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단지활용한 양식 인공어초 설치, 뉴시터 운영, 관광 등 수산업 공존 및 지역성장 기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어업피해 조사가 중립적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해양환경 모니터링 R&D'

를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하에 3년 간 시행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해양환경변화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증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2019년 말부터는 5만 가구가 사용 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공급하게 되며, 시범 및 확산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온실가스 감축과 신 재생에너지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사업 파급효과로 지역사회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최치원·태산선비문화권 문화콘텐츠 개발 결과 보고회 열려

최치원 관련 웹툰·페이퍼 토이 제작 정읍 관련 음악 창작극 소설 발굴·개발 등 제시



'최치원·태산선비문화권 문화콘텐츠 개발(이하 최치원·선비문화 개발)' 결과 보고회가 지난 14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고회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사업시행 주체인(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전북문화진흥원) 최훈 본부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전북문화진흥원은 그간 추진해

온 정읍 관련 콘텐츠 개발 성과물로 ▲태산의 거인 최치원 등 56개의 잘 알려지지 않은 정읍의 설화를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게 엮어내는 최치원 관련 웹툰 ▲무성서원과 최치원 페이퍼 토이 제작 ▲화호리(재)아트북과 다큐 제작 ▲정읍 관련 음악 창작극 시나리오와 소설 발굴·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전문가로 참여한

이정훈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교수가 '정읍 스토리 연구조사 결과 보고회'를 통해 다양하고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읍의 스토리 자원인 태산선비문화권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김개남장군, 정읍사를 비롯 육정호와 우물의 농경문화, 내장사의 생태 관광적 가치 등의 가치와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화 가능성 등을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지역 곳곳에 숨 쉬고 있는 정읍의 역사문화유적과 청정 자연유산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스토리화해 경쟁력 있는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치원·선비문화 개발은 전북 문화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북지역 스토리랩 운영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 문화진흥원은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6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전국 광역시도별 지역 문화산업 지원기관을 통해 스토리 발굴, 창작자 양성, 콘텐츠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지역의 자생적인 이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여성 사회참여 확대·복지증진 위한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심의

김제시(시장 이갑식)는 15일 시청 2층 상환실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국소실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6명과 백창민 김경숙 시의원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안건은 2017년도 김제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와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2016년 결산 및 2017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시는 2008년부터 양성평등기금 5억원을 조성,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해마다 비영리 민간단체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 해는 17.5백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시민 모

니터링과 꿈이 있는 여성리더 만들기 등 교육사업, 찾아가는 효도방앗간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구현에 만전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일·가정 양립의 확산과 고용격차 해소 및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건강과 복지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6개 분야를 근간으로 다양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김제=곽노태기자

경영위기농가 회생지원사업비 61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2017년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61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의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경작지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60,000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농기센터, 쌀 생산기반 유지 '3저3고 운동' 추진

정읍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쌀의 적정 생산과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3저3고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3저3고 운동'이란 질소비료를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낮추며 재배면적을 줄이는 3저와 밭맛을 높이고, 완전미 비율을 높이며, 소비를 촉진하는 3고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기술센터는 "질소비료를 적게 뿌려야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 시비량을 1천㎡당 2kg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질소비료

를 많이 주면 전분 세포막에 단백질 덩어리가 축적돼 밥의 점성이 떨어지고 조직감이 나빠져 맛을 떨어뜨린다.

또 쌀의 단백질은 주로 쌀알 바깥층에 분포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밥을 지었을 때 밥이 딱딱하고 탄력과 점성이 떨어진다.

좋은 쌀의 단백질 함량은 7% 이하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총체시료용 벼 경제성 제고 및 쌀 수급조절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논 다양화를 통한 쌀 수급조절을 통해 쌀 가격의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TEL: 063-584-9960 www.gangsanwine.com